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2082.83 +14.66	코스닥지수 ▲ 651.96 +5.16	유가(WTI, 달러) ▼ 52.81 -0.78	환율(원)	1USD 1210.82 100¥ 1114.47	살매 1169.18 팔매 1076.15	1EUR 1339.65 1CNY 175.81	살매 1287.39 팔매 159.07
---------------------------	-------------------------	------------------------------	-------	------------------------------	--------------------------	-----------------------------	-------------------------

제주 아파트 분양가 4억 “억소리 난다”

<105㎡ 기준>

9월말 기준 ㎡당 386만원... 서울·수도권 이어 6위 32평형 4억857만원... 작년 동기비 5650만원 올라

미분양 사태 속에서도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05㎡(32평) 기준, 올 들어 첫 4억원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전국의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제주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386만9000원으로 전

국평균 353만9000원보다 33만원이 높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와 부산·대구에 이어 6위다. 광주·대전·울산·세종시 등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앞서며 높은 몸값을 기록 중이다.

서울이 808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인천(394만1000원)·부산(402만3000원)과도 비등하다. 플찌

인 충북(226만3000원)에 견줘서는 160만6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32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제주는 4억857만원으로 충북의 2억3897만원보다 1억6960만원이 비싼 셈이다. 또한 제주의 지난해 동기 32평 기준 아파트 분양가는 3억5207만원으로 1년 새 가격 차는 5650만원에 이른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며 그만큼 서민들의 아파트 매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른 제주의 분양가격지수(2014=100)는 165.3(전국평균 136.2)으로 대구(174.6)에 이어 전

국 2위, 지난해 동기의 142.4에서 16.06%p 늘었다. 2014년보다 5년 만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65.3% 올랐다는 의미다.

전국의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대비 0.69% 내렸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63% 상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제주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10월 441세대, 11월 16세대 등 모두 457세대다. 12월 신규 분양 물량은 없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미래자동차산업 정부 정책과 방향성

“주식시장서 재평가 계기 될 것”

정부는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자동차산업의 3대 미래 전략이 포함된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대책을 종합하고 후 자동차산업 내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의 부상으로 산업 자체가 변화하는 대격변이 예고되는 있는 만큼 3개의 큰 틀 안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장기화 및 세부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화된 3가지 미래전략을 보면 친환경차의 기술력과 국내 보급의 가속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재 정비와 완비,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 촉진으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의 신속한 구축이다. 크게 친

게 무선통신방식을 전국 주요도로에 배치하고 도로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7년까지 레벨4에 해당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부품 및 시스템, 인프라 기술에 집중 투자해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국산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근본적으로 핵심소재 및 부품의 자립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켜 완성차 산업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주행의 사업을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위주로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차 사업전환 기업 대상 자금 지원도 현행 3.5조원에서 5.5

국내 부품사 친환경·자율주행차 위주 촉진 예상 단발성 비전 선포 아닌 구체적 정책·성과 기대대

환경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산업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전략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친환경차 부분이었다.

친환경차 전략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를 현재 2.6%에서 2030년까지 33%로 급격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과 함께,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모델을 다양화하고 수소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끌어올리며 특히 수소충전소를 현재 31개 수준에서 2030년 660개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산업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끌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략과 방향성을 같이하는 내용이였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는 2021년에는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레벨4 차량의 출시 추진이 계획,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인프라의 경우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및 정밀지도, 교통과제, 도로의 4대 인프라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조원 이상으로 추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센서, 반도체, 자율주행 및 스타트업에 개발과 시험장비를 제공하는 등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뚜렷히 했다.

이번 정책 발표로 정부의 지속성 있는 미래차 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 했으며, 단발성 비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들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에서 다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도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다시금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9월 취업자 작년보다 9000명 늘었다

제주 고용률 68.2% 전국 1위 남자 1.1% 줄고 여자 6.7%↑

9월 제주지역 취업자가 9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의 고용률은 68.2% (전국평균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 전국 1위를 고수했다. 성별로는 남자 취업자는 20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2000명(1.1%) 줄었고, 여자는 17만7000명으로 1만1000명(6.7%)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1.6%로 작년보다 0.4%p 상승했고 실업자수는 6000명으로 1년새 2000명이 늘었다.

15세 이상의 제주도민은 56만명으로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38만8000명(참가율 69.3%)이다. 이중

38만2000명이 취업자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3만6000명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로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됐다. 임금근로자는 24만6000명으로 이중 상용근로자는 15만2000명(61.8%)이며 임시근로자는 6만4000명(26.0%),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3만명(12.2%)이다.

산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해 농업·축산업 7000명(12.3%), 건설업 2000명(5.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000명(2.0%) 각각 늘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모두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가 전체 2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구성비 23.0%보다 높다. 작년 9월 8만6000명에서 1년 만에 10만4000명으로 1만8000명(21.5%)이 늘며 고용의 질은 낮아졌다.

백금탁기자



“활짝 핀 제주 역사 구경해요” 말레이시아에 제주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제주관광공사의 초청을 받고 지난 15일 제주에 온 현지 미디어와 여행사 관계자가 역사기린 새별오름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1위

1인당 한해 3137만원 벌어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미성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 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로 소득을 올린 제주지역 미성년자는 모두 27명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제주지역 미성년자는 1년 전과 비교해 3명이 늘었다. 이들 미성년자 27명은 그해 부

동산 임대 소득으로 8억4700만원을 벌었다. 1인당 임대소득은 31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임대소득이 가장 적었던 강원(763만원)과 비교하면 제주지역 소득은 4배 이상 많았다.

심기준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업 시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소상공인 애로 해결 도와요” 서귀포서 전문가 종합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는 18일 서귀포 스타트업베이(NH농협 남제주지점 빌딩)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합컨설팅’을 운영한다.

분야별 전문가인 강대웅·차영균

변호사, 박상호 노무사, 이관준 세무사, 오종철 경영지도사와의 1:1 맞춤형 무료 상담이 이뤄진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이다.

문의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758-5710 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서귀포지점 064)733-8133.

백금탁기자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서귀포 강정동 2100㎡(자연녹지(과)) 	<p>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전)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	--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p>※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해안동 생관리아(목장) 맹지 28,842㎡ 6억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p>※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월수신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고성외고인근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9억원 한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관포 바다경관 및 자연녹지 3028㎡ 6.49억원 	<p>※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5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우도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	--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촉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